남자 중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유은주 · 최혜선[†] · 이경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A Study on the Wearing Conditions of Middle School Boys' Uniforms

Eun-Joo Ryu · Hei-Sun Choi[†] · Kyong-Hwa Yi*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접수일(2011년 4월 18일), 수정일(2011년 7월 5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ar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level of middle school boys' uniforms. The subjects for the survey were 626 male students from 9 middle school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4.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en purchasing school uniforms, students considered the comfort and the fit important. Student considered importantly the shoulder width of jacket, the shirt length and the sleeve length of shirt, and the pant length and the pant width of pants. 2) Most of students purchased one size bigger school uniforms because they need to wear school uniforms for three years. About 80% of students ha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ize label, and this made it difficult to select the right size of school uniforms even if they knew their body size exactly. 3) About 10% of students repurchased school uniforms because their school uniforms did not fit any more. The periods of repurchase were the 1st grade 2nd semester and the 2nd grade 1st semester. 4) The waist circumference of pants and the pant width were evaluated larger and the pant length was evaluated to be longer (36.6% of students evaluated that the pant length was longer). Compared to 2nd grade and 3rd grade, the freshman felt that school uniforms were bigger. 5) 44.9% of students had the experience of repairing their school uniforms.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repair was that the size of school uniforms did not fit well. 202 students repaired the pant length and 86.1% of them reduced their pant length.

Key words: School uniform, Male middle school student, Wearing condition; 교복, 남자 중학생, 착용 실태

I. 서 론

청소년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복을 연구함에 있어 교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 각 부위의 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왕성한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로

만 11세에는 남자의 성장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만 12세에는 서서히 남자의 신체치수의 평균값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Jeong et al., 2007). 남자 중학생의 성장특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높이항목과 길이항목이 둘레나 너비항목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연령에 따른 성장량은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3~14세보다는 12~13세 사이에 빠른 성장을 보인다(Lee, 1998). Leem and Shin(2006)의 연구에서도 12세에서 13세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이고 13세에서 14세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choi@ewha.ac.kr

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증가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허리보다 가슴이 더 넓은 남성적 체형이라 할 수 있는 역삼각형의 체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 치수의 변화가 현저한 남자 중학생들은 대다수가 입학시점에서 교복을 구입하여 3년간 착용하게 된다. 따라서 남자 중학생의 급격한 신체 성장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착용이 요구되는 교복의 경우 착용 기간 중 맞음새가 계속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교복 제작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인체는 각 부위가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시점이 상이하므로 성인과 다른 체형의 변화를 초래하며(Lee et al., 1997) 특히 청소년기는 사춘기적 성장을 거쳐 아동의 체형에서 성인에 가까운 체형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이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큰 시기이다(Lee, 1998). 교복은 성장의 속도와 성장량이 다른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성인 의류에 비해 많은 사이즈를 생산하고 있으나 각 개인은 적합한 사이즈의 교복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 교복 업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바탕 한 치수 체계를 전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치수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치수라도 제품 치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치수를 선택하는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업체에서 고등학생의 신체적인 특성이 반영된 치수 체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중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기준 길이에 비하여 가슴둘레와 허리둘레가 크게 나타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기준을 두어 교복을 구입할 경우 길이 부위가 짧거나, 혹은 키에 맞추어 교복을 구입할 경우 너비와 길이가 모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Lee et al., 2004).

또한 청소년기에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로 유행하는 트렌드에 따라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맞음새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실제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디자인, 활동성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청소년기에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를 조사하고 교복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01).

그러나 청소년기의 교복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며 여학생에 집중되어 있고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교복에 대한 치수 맞음새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 특히 신체의 변화가 빨라 교복의 치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의 구매행동, 교복의 치수 선택 및 치수 인식, 교복의 추가구입, 교복의 치수 적합성, 교복의 수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남자 중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남자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복을 생산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교복의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의 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657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31부를 제외하고 총 62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및 학년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교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구매행동, 교복의 치수 선택 및 치수 인식, 교복의 추가구입, 교복의 치수 적합성, 교복의 수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항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항목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3문항, ‘교복 구매행동’ 관련 8문항, ‘교복 치수’ 관련 5문항, ‘교복 추가구입’ 관련 2문항, ‘교복 치수 적합성’ 관련 1문항, ‘교복 수선’ 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4.0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in this survey

Middle School	Area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A	Seocho-gu	24 (3.8%)	21 (3.4%)	-
B	Mapo-gu	25 (4.0%)	30 (4.8%)	-
C	Jung-gu	29 (4.6%)	26 (4.1%)	22 (3.5%)
D	Gangdong-gu	33 (5.3%)	24 (3.8%)	31 (5.0%)
E	Gangdong-gu	-	50 (8.0%)	25 (4.0%)
F	Yangcheon-gu	20 (3.2%)	20 (3.2%)	17 (2.7%)
G	Gangdong-gu	33 (5.3%)	-	-
H	Gwangjin-gu	33 (5.3%)	37 (5.9%)	15 (2.4%)
I	Seongbuk-gu	53 (8.5%)	27 (4.3%)	31 (4.9%)
Total		250 (40.0%)	235 (37.5%)	141 (2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복의 구매행동, 교복의 치수 선택 및 치수 인식, 교복의 추가구입, 교복의 수선 관련 문항은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복의 치수 적합성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교복의 부위별 맞춤새 분석을 위해 학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보인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Games-Howell test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교복 구입

입학 시에 77.3%가 개별적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가 공동구매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브랜드 전문점에서의 구입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맞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15.0%로 나타나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공동구매에 비해 많으며,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맞춤점보다 브랜드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입 형태를 조사한 결과 66.8%가 기성복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고 33.2%의 학생이 맞춤복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성복형 교복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아이비클럽’(29.3%), ‘스마트’(28.3%), ‘엘리트’(2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복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61.8%의 학생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내 몸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하는 경우는 13.0%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 시에 대부분의 학생(86.1%)이 부모님과 상의하여 구입하였으며 교복 구입 시에 고려하는 항목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Table 2>, 브랜드 인지도를 제외하고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편안함’의 경우 74.7%의 학생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맞음새’와 ‘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et al.(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맞춤새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편안함과 맵시 등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 모두 맞춤새와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의 경우 편안한 것과 몸에 잘 맞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복 구입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Table 3> 교복 재킷을 구입하는 경우 어깨너비(23.8%)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길이(19.9%), 재킷길이(16.6%), 허리둘레(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셔츠 구입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위는 셔츠길이(23.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매길이(21.2%), 허리둘레(17.5%), 가슴둘레(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바지를 구입하는 경우 바지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바지길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도 29.1%로 높게 나타났고 허리둘레(20.8%), 엉덩이둘레(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은 교복 재킷 구입

Table 2. Priority factors in purchasing school uniforms

Factor	Mean	SD	Not much	A little so	Normal	Much so	Very much so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it	4.5	0.7	4 (0.6%)	4 (0.6%)	48 (7.7%)	205 (33.0%)	360 (58.0%)	621 (100.0 %)
Price	4.2	0.9	17 (2.8%)	5 (0.8%)	93 (15.6%)	196 (32.8%)	287 (48.0%)	598 (100.0%)
Fabric	4.3	0.8	7 (1.1%)	5 (0.8%)	80 (12.9%)	205 (33.1%)	322 (52.0%)	619 (100.0%)
Quality	4.4	0.8	6 (1.0%)	2 (0.3%)	53 (8.8%)	195 (32.6%)	343 (57.3%)	599 (100.0%)
Style of dressing	4.2	0.9	12 (1.9%)	13 (2.1%)	116 (18.8%)	201 (32.5%)	276 (44.7%)	618 (100.0%)
Brand awareness	3.4	1.3	89 (14.9%)	37 (6.2%)	191 (32.0%)	125 (21.0%)	154 (25.8%)	596 (100.0%)
Functional design	4.2	0.9	10 (1.6%)	13 (2.1%)	104 (16.8%)	203 (32.8%)	288 (46.6%)	618 (100.0%)
Comfort	4.7	0.6	3 (0.5%)	2 (0.3%)	31 (5.2%)	115 (19.3%)	446 (74.7%)	597 (100.0%)

1=Not much←3=Normal→5=Very much so (5-point scale)

: observed over 50%

Table 3. Major parts considered in purchasing school uniforms

Jacket		Shirt		Pants	
Part of garment	Frequency (%)	Part of garment	Frequency (%)	Part of garment	Frequency (%)
Shoulder width	286 (23.8%)	Neck circumference	115 (9.7%)	Waist circumference	248 (20.8%)
Chest circumference	141 (11.7%)	Chest circumference	191 (16.1%)	Hip circumference	150 (12.6%)
Waist circumference	192 (16.0%)	Waist circumference	208 (17.5%)	Pant length	347 (29.1%)
Sleeve length	239 (19.9%)	Sleeve length	252 (21.2%)	Pant width	357 (30.0%)
Jacket length	199 (16.6%)	Shirt length	282 (23.7%)	Crotch length	86 (7.2%)
Sleeve width	139 (11.6%)	Sleeve width	135 (11.4%)	Other	3 (0.3%)
Other	5 (0.4%)	Other	5 (0.4%)		
Total	1,201 (100.0%)	Total	1,188 (100.0%)	Total	1,191 (100.0%)

Multiple responses

: observed over 20%

시 어깨부위 맞음새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셔츠의 경우 셔츠길이와 소매길이, 바지의 경우 바지통과 바지길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Hyun et al., 2008; Lee et al., 2004)에서는 재킷 구입 시 어깨너비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지 구입 시 허리둘레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et al.(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재킷 선택에 있어 소매길이를 중요시하고 바지 선택 시 바지길이와 바지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와 자켓 구입 시 소매길이를 중요시하거나

바지 구입 시 허리둘레를 중요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와 자켓 구입 시 어깨너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바지 구입 시 바지통과 바지길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같은 기본적인 부위보다 전체적인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위의 맞음새를 민감하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교복 설계 시 자켓의 경우 어깨너비, 바지의 경우 바지통과 바지길이의 맞음새에 관하여 좀 더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복 구입 시에<Table 4> 재킷(88.1%)과 동복 바지

(57.4%), 하복 바지(58.7%)는 1벌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동복 바지의 경우 2벌을 구입하는 경우가 42.0%, 하복 바지의 경우 39.9%로 나타났다. 동복 셔츠(76.1%)와 하복 셔츠(73.1%)는 2벌 구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재킷과 바지는 1벌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선행연구(Lee et al., 2009)와 동일한 결과로 재킷의 경우 겉옷의 개념으로 대부분 1벌을 구입하고 있었다. 셔츠의 경우에는 땀 등으로 인한 오염이 쉽기 때문에 번갈아 입기 위하여 대부분 2벌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복의 치수 선택 및 치수 인식

교복 구입 시에 치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조사한 결과<Table 5> ‘판매원이 치수를 쟀 후 권하는 것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판매원에게 나의 치수를 말하고 권하는 것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0%로 나타나 70.1%의 학생이 판매원이 권하는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치수를 측정하여 개별적으로 맞춘다고 응답한 경우는 7.4%로 교복 구입 시 맞춤복을 구입하는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춤복을 구입한 경우에도 나의 치수를 몰라서 판매원이 치수를 쟀

후 권하는 구입하였다고 응답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교복 구입 시 대부분의 학생(85.0%)이 성장을 고려하여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큰 치수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 점과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 얼마나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는지 조사한 결과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76.2%, 두 치수 큰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8.8%로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고 입학 시에 구입한 교복을 3년간 착용하므로 급격한 신체 성장을 겪는 중학생은 맞춤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한 치수 큰 교복을 구입하여 3년간 착용하므로 중학생의 신체 치수 분석과 업체의 제품 치수 비교 분석을 통해 학년 증가에 따라 맞춤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품 설계 시 여유량 설정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 중학생이 교복 치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선행연구(Hyun et al., 2008; Lee et al., 2009) 결과 제품에 부착된 치수를 보고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었고 라벨을 보고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어려움

Table 4. The number of each item purchases on the first buy

	1	2	3	4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Jacket	549 (88.1%)	70 (11.2%)	4 (0.6%)	0 (0.0%)	623 (100.0%)
F/W shirt	97 (15.5%)	475 (76.1%)	43 (6.9%)	9 (1.4%)	624 (100.0%)
F/W pants	358 (57.4%)	262 (42.0%)	2 (0.3%)	2 (0.3%)	624 (100.0%)
Summer shirt	119 (19.1%)	456 (73.1%)	45 (7.2%)	4 (0.6%)	624 (100.0%)
Summer pants	366 (58.7%)	249 (39.9%)	7 (1.1%)	2 (0.3%)	624 (100.0%)

■ : observed over 50%

Table 5. The result of how to choose the size of school uniforms

Article	Frequency	%
Choose the size that salesperson recommend after talking to salesperson my measurements	150	24.0
Choose the size that salesperson recommend after a salesperson measure me	288	46.1
Choose the size that parents recommend without purchasing directly	102	16.3
Choose the same size of other ready-to-wear	22	3.5
Choose the school uniform made to my measure	46	7.4
Other	17	2.7
Total	625	100.0

■ : observed over 20%

Table 6. Size preference for school uniforms on the first buy

Article	Frequency	%
Just the right size	75	12.0
One size bigger	477	76.2
Two sizes bigger	55	8.8
Other	19	3.0
Total	626	100.0

■ : observed over 50%

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 치수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남자 중학생들의 치수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남자 중학생이 자신의 교복 치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시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교복의 치수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아이템별로 재킷 86.9%, 셔츠 70.8%, 바지 85.5%의 학생이 치수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답해 자신의 교복 치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복의 호칭에서 각 항목이 표시하고 있는 신체 치수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Table 7> 재킷과 셔츠 사이즈 라벨의 경우 63.1%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각각 가슴둘레와 키의 치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23.8%로 나타났으며, 다른 신체 치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바지 사이즈 라벨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각 허리둘레와 키의 치수를 표시한다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9.0%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위의 신체 치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복의 사

이즈 라벨에 표기된 호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이즈 라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이즈 표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교복의 추가구입

처음 교복 구입 후 필요에 의해서 교복을 추가로 구입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Table 8>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가로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경우 추가로 구입한 경우가 3.5%로 매우 낮았으며, 동복 셔츠(10.2%), 동복 바지(9.9%), 하복 셔츠(10.9%), 하복 바지(11.7%)의 경우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10~11% 정도로 24.8%의 학생이 재구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Hyun et al.(2008)의 연구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복 교복에 대한 구입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 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Lee(200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남자 중학생들의 재구입 비율은 낮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에 구입한 교복을 3년 동안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복 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구입하는 시기를 살펴보면<Table 9>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에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복이 작아져서 2학년 1학기과 2학년 2학기에 재구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 Hyun et al.(2008)의 연구와 교복의 재구입 시기는 주로 2학년이라고 한 Lee et al.(2004)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3학년 이후에는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1벌을 구입하였다. 이는 대체로 13~14세보다는 12~13세 사이에 빠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교복이 맞지 않게 되고 교복 착용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

Table 7. The state of participa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size label of school uniforms

Item	Article	Frequency (%)	Item	Article	Frequency (%)
Jacket and Shirt	Do not know	395 (63.1%)	Pants	Do not know	371 (59.3%)
	Chest circumference-Stature	149 (23.8%)		Waist circumference-Stature	119 (19.0%)
	Waist circumference-Stature	41 (6.5%)		Hip circumference-Stature	76 (12.1%)
	Jacket length-Stature	39 (6.2%)		Pant length-Stature	59 (9.4%)
	Other	2 (0.3%)		Other	1 (0.2%)
	Total	626 (100.0%)		Total	626 (100.0%)

■ : observed over 20%

Table 8. Additional purchase of school uniforms by each item

Item	Repurchase	Do not repurchase	Tota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Jacket	22 (3.5%)	604 (96.5%)	626 (100.0%)
F/W shirt	64 (10.2%)	562 (89.8%)	626 (100.0%)
F/W pants	62 (9.9%)	564 (90.1%)	626 (100.0%)
Summer shirt	68 (10.9%)	558 (89.1%)	626 (100.0%)
Summer pants	73 (11.7%)	553 (88.3%)	626 (100.0%)

Table 9. The period and number of additional purchase of school uniforms by each item

Category \ Item		Jacket	F/W shirt	F/W pants	Summer shirt	Summer pants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st grade 2nd semester	1	9 (37.5%)	24 (33.8%)	15 (22.4%)	18 (24.3%)	11 (13.9%)
	2	1 (4.2%)	3 (4.2%)	2 (3.0%)	5 (6.8%)	3 (3.8%)
	3	-	-	-	-	1 (1.3%)
	Sub Total	10 (41.7%)	27 (38.0%)	17 (25.4%)	23 (31.1%)	15 (19.0%)
2nd grade 1st semester	1	7 (29.2%)	15 (21.1%)	26 (38.8%)	26 (35.1%)	32 (40.5%)
	2	2 (8.3%)	8 (11.3%)	2 (3.0%)	6 (8.1%)	4 (5.1%)
	Sub Total	9 (37.5%)	23 (32.4%)	28 (41.8%)	32 (43.2%)	36 (45.6%)
2nd grade 2nd semester	1	2 (8.3%)	11 (15.5%)	13 (19.4%)	6 (8.1%)	11 (13.9%)
	2	-	1 (1.4%)	-	3 (4.1%)	-
	Sub Total	2 (8.3%)	12 (16.9%)	13 (19.4%)	9 (12.2%)	11 (13.9%)
3rd grade 1st semester	1	3 (12.5%)	7 (9.9%)	8 (11.9%)	7 (9.5%)	13 (16.5%)
	2	-	1 (1.4%)	-	2 (2.7%)	2 (2.5%)
	3	-	1 (1.4%)	-	-	-
	Sub Total	3 (12.5%)	9 (12.7%)	8 (11.9%)	9 (12.2%)	15 (19.0%)
3rd grade 2nd semester	1	-	-	1 (1.5%)	1 (1.3%)	2 (2.5%)
	Sub Total	-	-	1 (1.5%)	1 (1.3%)	2 (2.5%)
Total		24 (100.0%)	71 (100.0%)	67 (100.0%)	74 (100.0%)	79 (100.0%)

Multiple responses

로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바지를 제외하고 ‘옷이 맞지 않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동복 바지의 경우 ‘달거나 찢어져서’ 구입하는 경우가 37.7%, ‘옷이 맞지 않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35.8% 순으로 나타났다. 하복 바지의 경우 ‘옷이 맞지 않아서’ 구입하는 경우와 ‘달거나 찢어져서’ 구입하는 경우가 33.3%로 동일하게 나타나 바지의 경우 다른 아이템에 비하여 달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복 셔츠의 경우 ‘옷이 맞지 않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39.3%, ‘변갈아 입으려고’ 구입하는

경우가 33.9% 순으로 나타나 여름철에는 땀 등으로 인한 오염이 쉬워 번갈아 입기위해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구입 시에는 브랜드 전문점에서의 구입이 57.0%로 많았으며 ‘맞춤점에서 개별구매’하는 경우가 21.9%,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경우가 12.5% 순으로 나타나 처음 교복을 구입할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4. 교복의 치수 적합성

교복의 치수 적합성은 교복 부위의 맞춤새에 따라 ‘작다/짧다’, ‘약간 작다/짧다’, ‘적당하다’, ‘약간 크다/길

다', '크다/길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0>과 같고 학년별 맞춤새의 비교 결과는 <Table 11>에 제시하였다.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수 맞춤새에 있어 3점에 가까운 응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중학교 남학생들은 교복이 약간 작은 것으로 느낀다는 Lee et al.(2009)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재킷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적당하다'는 3점에 근접한 값을 보였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소매길이항목을 제외하고 '약간 크다/길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길이항목인 재킷길이와 소매길이항목에서는 '약간 짧다'고 느끼는 경우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 길이부위의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 재킷의 맞춤새를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 재킷길이, 소매길이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길이항목인 재킷길이, 소매길이는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하여 길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적당하다'는 3점에 가까운 응답으로 맞춤새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년별 셔츠의 맞춤새를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의 경우 목둘레, 가슴둘레, 소매통항목에서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길이는 길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목둘레, 가슴둘레, 진동둘레, 소매통항목에서 1학년과 3학년에 비하여 작다고 느끼며 셔츠길이와 소매길이는 짧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셔츠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셔츠의 추가구입이 많이 나타나며 12~13세에 빠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 셔츠가 작다고 느끼고 3학년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셔츠를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2학년에 비하여 셔츠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재킷길이와 재킷 소매길이, 셔츠 소매길이는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킷 소매길이, 셔츠길이, 셔츠 소매길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짧게 느낀다고 한 Lee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Hyun et al., 2008; Lee et al., 2009)에서 재킷길이와 소매길이가 짧다고 느끼며 작아지는 부위로 나타나 제품 설계 시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바지의 경우 엉덩이둘레와 허벅지둘레, 밑위길이, 바지길이의 항목에서 평균값이 '적당하다'는 3점에 근접한 값을 보였으나 크거나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허리둘레의 경우 24.8%, 바지길이의 경우 22.6%로 20% 이상의 학생이 크거나 길다고 답하여 중학교 남학생들은 바지길이가 약간 짧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e et al., 2009; Lee et al., 2004)와 차이가 있었다. 바지통의 경우 학생의 36.6%가 '약간 크다' 또는 '크다'고 답해 선행연구(Lee, 2006; Lee et al., 2004)와 동일한 결과로 바지통이 크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행에 맞는 슬림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별 바지 맞춤새를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와 바지길이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학년 학생들은 허리둘레가 크고 바지길이가 길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중학생은 1학년의 경우 2, 3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둘레항목에서는 크다고 느끼며 길이항목에서는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1학년의 경우 동복 재킷, 셔츠, 바지에 있어 치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 3학년은 신체 성장이 현저해 착용 교복의 치수가 작아진다고 한 Lee(2006)의 연구와 비교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복을 작게 느끼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학년의 경우 바지 허리둘레와 바지길이는 크거나 길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Lee(2006)의 연구에서 1학년은 교복 구입 시에 치수에 적합한 교복을 구입하여 치수 적합도가 높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와 Lee et al.(2009)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장을 고려하여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1학년의 경우 특정 부위에서 크거나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교복의 수선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의 학생(44.9%)이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행연구(Hyun et al., 2008; Lee, 2006; Lee et al., 2009)에서 과반수 정도의 학생이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교복을 수선한 이유를 살펴보면 치수가 맞지 않아서 교복을 수선했다는 응답을 53.4%로 가장 많이 하였으며 '활동하는데 불편해서(17.8%)', '유행이라서(16.7%)', '땀거나

Table 10. Size fitness of school uniforms by each part

Item	Part of garment	Mean	SD	Small/Short	A little Small/Short	Appropriate fit	A little Big/Long	Big/Long	Total
Jacket	Shoulder width	3.06	0.63	14 (2.2%)	43 (6.9%)	478 (76.4%)	71 (11.3%)	20 (3.2%)	626 (100.0%)
	Chest circumference	3.07	0.55	6 (1.0%)	40 (6.4%)	500 (79.9%)	63 (10.1%)	17 (2.7%)	626 (100.0%)
	Waist circumference	3.09	0.58	11 (1.8%)	32 (5.1%)	490 (78.3%)	77 (12.3%)	16 (2.6%)	626 (100.0%)
	Jacket length	3.01	0.68	18 (2.9%)	71 (11.3%)	441 (70.4%)	78 (12.5%)	18 (2.9%)	626 (100.0%)
	Armhole	3.04	0.56	13 (2.1%)	35 (5.6%)	504 (80.6%)	60 (9.6%)	13 (2.1%)	625 (100.0%)
	Sleeve length	2.95	0.67	23 (3.7%)	77 (12.3%)	450 (71.9%)	63 (10.1%)	13 (2.1%)	626 (100.0%)
	Sleeve width	3.10	0.61	11 (1.8%)	36 (5.8%)	476 (76.0%)	85 (13.6%)	18 (2.9%)	626 (100.0%)
Shirt	Neck circumference	2.95	0.52	12 (1.9%)	54 (8.6%)	521 (83.2%)	30 (4.8%)	9 (1.4%)	626 (100.0%)
	Chest circumference	3.02	0.43	3 (0.5%)	37 (5.9%)	538 (85.9%)	41 (6.5%)	7 (1.1%)	626 (100.0%)
	Waist circumference	3.04	0.48	6 (1.0%)	33 (5.3%)	522 (83.5%)	55 (8.8%)	9 (1.4%)	625 (100.0%)
	Shirt length	3.02	0.56	11 (1.8%)	49 (7.8%)	492 (78.6%)	64 (10.2%)	10 (1.6%)	626 (100.0%)
	Armhole	2.99	0.49	7 (1.1%)	47 (7.5%)	525 (84.0%)	37 (5.9%)	9 (1.4%)	625 (100.0%)
	Sleeve length	3.02	0.53	10 (1.6%)	45 (7.2%)	501 (80.2%)	61 (9.8%)	8 (1.3%)	625 (100.0%)
	Sleeve width	2.99	0.54	9 (1.4%)	57 (9.1%)	501 (80.0%)	50 (8.0%)	9 (1.4%)	626 (100.0%)
Pants	Waist circumference	3.22	0.72	8 (1.3%)	42 (6.7%)	420 (67.2%)	112 (17.9%)	43 (6.9%)	625 (100.0%)
	Hip circumference	3.11	0.60	9 (1.4%)	34 (5.4%)	480 (76.8%)	82 (13.1%)	20 (3.2%)	625 (100.0%)
	Thigh circumference	3.12	0.68	11 (1.8%)	49 (7.8%)	448 (71.7%)	87 (13.9%)	30 (4.8%)	625 (100.0%)
	Crotch length	3.10	0.58	6 (1.0%)	37 (5.9%)	491 (78.6%)	69 (11.0%)	22 (3.5%)	625 (100.0%)
	Pant width	3.44	0.86	8 (1.3%)	34 (5.4%)	355 (56.7%)	135 (21.6%)	94 (15.0%)	626 (100.0%)
	Pant length	3.16	0.73	10 (1.6%)	57 (9.1%)	418 (66.8%)	105 (16.8%)	36 (5.8%)	626 (100.0%)

1=Small (Short)←3=Appropriate fit→5=Big (Long) (5-point scale)

: observed over 20%

뜯어져서(10.3%)’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선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선했었다. 교복 바지의 길이를 수선했다는 응답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복 바지의 바지통을 수선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명으로 많이 나타났다. 바지길이와 바지통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줄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바지길이와 바지통의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바지길이는 약간 길다고 느끼고 바지통은 약간 크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수선하여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로 줄이는 방향으로 수선했

Table 11. Size fitness of school uniforms by each part according to grade

Item	Part of garment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Jacket	Shoulder width	3.10 (0.56)a ¹⁾ n=250	2.98 (0.58)a ¹⁾ n=235	3.13 (0.79)a ¹⁾ n=141	3.197*
	Chest circumference	3.10 (0.48)a ¹⁾ n=250	3.00 (0.55)a ¹⁾ n=235	3.14 (0.66)a ¹⁾ n=141	3.452*
	Waist circumference	3.11 (0.52)ab ¹⁾ n=250	3.00 (0.60)a ¹⁾ n=235	3.20 (0.65)b ¹⁾ n=141	5.444**
	Jacket length	3.13 (0.57)b ²⁾ n=250	2.89 (0.7 ¹⁾ a ²⁾ n=235	3.01 (0.78)ab ²⁾ n=141	7.516***
	Armhole	3.08 (0.49) n=250	2.99 (0.56) n=234	3.05 (0.68) n=141	1.817
	Sleeve length	3.10 (0.54)b ¹⁾ n=250	2.84 (0.67)a ¹⁾ n=235	2.85 (0.83)a ¹⁾ n=141	11.358***
	Sleeve width	3.14 (0.51) n=250	3.03 (0.64) n=235	3.16 (0.69) n=141	2.984
Shirt	Neck circumference	3.00 (0.51)b ¹⁾ n=250	2.87 (0.51)a ¹⁾ n=235	3.01 (0.51)b ¹⁾ n=141	5.053**
	Chest circumference	3.06 (0.39)b ²⁾ n=250	2.95 (0.41)a ²⁾ n=235	3.06 (0.52)b ²⁾ n=141	4.991**
	Waist circumference	3.06 (0.44) n=250	3.00 (0.49) n=234	3.09 (0.54) n=141	1.429
	Shirt length	3.05 (0.53)ab ²⁾ n=250	2.94 (0.54)a ²⁾ n=235	3.10 (0.64)b ²⁾ n=141	4.221*
	Armhole	3.02 (0.45)ab ²⁾ n=250	2.93 (0.51)a ²⁾ n=234	3.05 (0.50)b ²⁾ n=141	3.377*
	Sleeve length	3.10 (0.48)b ²⁾ n=250	2.95 (0.55)a ²⁾ n=234	2.99 (0.59)ab ²⁾ n=141	5.004**
	Sleeve width	3.04 (0.46)b ¹⁾ n=250	2.92 (0.58)a ¹⁾ n=235	3.02 (0.57)ab ¹⁾ n=141	3.247*
Pants	Waist circumference	3.34 (0.74)b ¹⁾ n=250	3.14 (0.71)a ¹⁾ n=234	3.16 (0.69)ab ¹⁾ n=141	5.100**
	Hip circumference	3.17 (0.60) n=250	3.04 (0.58) n=234	3.13 (0.62) n=141	2.717
	Thigh circumference	3.14 (0.68) n=250	3.05 (0.66) n=234	3.21 (0.72) n=141	2.780
	Crotch length	3.14 (0.54) n=250	3.03 (0.57) n=235	3.16 (0.66) n=140	2.670
	Pant width	3.43 (0.82) n=250	3.40 (0.90) n=235	3.50 (0.84) n=141	0.515
	Pant length	3.28 (0.67)b ²⁾ n=250	3.08 (0.74)a ²⁾ n=235	3.09 (0.78)a ²⁾ n=141	5.793**

* $p < .05$, ** $p < .01$, *** $p < .001$

1=Small (Short) ← 3=Appropriate fit → 5=Big (Long) (5-point scale)

¹⁾a < b Games-Howell test, ²⁾a < b Scheffé test

Table 12. The repaired parts of school uniforms by each item

Item	Part of garment	Reduce	Increase	Total
Jacket	Shoulder width	15 (83.3%)	3 (16.7%)	18 (100.0%)
	Chest circumference	15 (83.3%)	3 (16.7%)	18 (100.0%)
	Waist circumference	13 (81.3%)	3 (18.8%)	16 (100.0%)
	Jacket length	16 (76.2%)	5 (23.8%)	21 (100.0%)
	Armhole	11 (78.6%)	3 (21.4%)	14 (100.0%)
	Sleeve length	18 (78.3%)	5 (21.7%)	23 (100.0%)
	Sleeve width	13 (76.5%)	4 (23.5%)	17 (100.0%)
Shirt	Chest circumference	11 (78.6%)	3 (21.4%)	14 (100.0%)
	Waist circumference	14 (87.5%)	2 (12.5%)	16 (100.0%)
	Shirt length	14 (93.3%)	1 (6.7%)	15 (100.0%)
	Armhole	12 (85.7%)	2 (14.3%)	14 (100.0%)
	Sleeve length	14 (93.3%)	1 (6.7%)	15 (100.0%)
	Sleeve width	11 (73.3%)	4 (26.7%)	15 (100.0%)
Pants	Waist circumference	31 (73.8%)	11 (26.2%)	42 (100.0%)
	Hip circumference	18 (85.7%)	3 (14.3%)	21 (100.0%)
	Thigh circumference	42 (93.3%)	3 (6.7%)	45 (100.0%)
	Crotch length	20 (80.0%)	5 (20.0%)	25 (100.0%)
	Pant length	174 (86.1%)	28 (13.9%)	202 (100.0%)
	Pant width	116 (96.7%)	4 (3.3%)	120 (100.0%)

고 있는 것을 볼 때 유행에 맞는 슬림 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청소년기는 연령증가에 따라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사춘기적 성장을 거쳐 아동의 체형에서 성인에 가까운 체형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이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큰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복을 연구함에 있어 교복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교복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의 치수 맞춤새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복을 생산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서울시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의 착용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복 구입 시에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공동구매에 비해 많으며,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맞춤점보다 브랜드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없었으며, 맞춤복을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 시에 편안한 것과 몸에 잘 맞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킷 구입 시 어깨부위 맞춤새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셔츠의 경우 셔츠 길이와 소매길이, 바지의 경우 바지통과 바지길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 시에 재킷과 동복 바지, 하복 바지는 1벌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동복 셔츠와 하복 셔츠는 2벌 구입이 가장 많이 나타나 겉옷 개념의 재킷은 대부분 1벌을 구입하고 있으며 셔츠의 경우에는 땀 등으로 인한 오염이 쉽기 때문에 번갈아 입기 위해 대부분 2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복 구입 시 치수 선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70.1%의 학생이 판매원이 권하는 치수의 교복의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85.0%)이 성장을 고

려하여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고 있었고 이 중 76.2%의 학생이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의 치수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재킷, 바지, 셔츠의 치수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답하여 자신의 교복 치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킷과 셔츠, 바지의 사이즈 라벨에 표시된 호칭에서 각 항목이 표시하고 있는 신체 치수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재킷과 셔츠의 경우 23.8%, 바지의 경우 19%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중학생은 교복의 치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이즈 라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복의 추가구입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중학교 입학시에 구입한 교복을 3년 동안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구입 시기는 주로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였으며 3학년 이후에는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1벌을 구입하였다. 옷이 맞지 않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바지의 경우 다른 아이템에 비하여 닳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복 셔츠의 경우 번갈아 입기 위해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구입 시에 브랜드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맞춤점에서 개별구매하거나 공동구매 하는 경우에 비해 많이 나타나 처음 교복을 구입할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교복의 치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수 맞춤새에 있어 3점에 가까운 응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바지의 허리둘레와 바지통은 약간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킷과 셔츠, 바지의 모든 항목에서 맞춤새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재킷의 경우 크거나 길게 느끼는 경우가 다수 있고 길이항목인 재킷길이와 소매길이는 약간 짧다고 느끼는 경우도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이 나타나 길이부위의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바지의 경우 허리둘레와 바지길이 항목에서 20% 이상의 학생이 크거나 길다고 느꼈으며, 특히 바지통 항목에서 36.6%가 '약간 크다' 또는 '크다'고 응답해 바지통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에 맞는 슬림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별 맞춤새를 비교한 결과

재킷 허리둘레, 재킷길이, 재킷 소매길이, 셔츠 목둘레, 셔츠 가슴둘레, 셔츠길이, 셔츠 진동둘레, 셔츠 소매길이, 셔츠 소매통, 바지 허리둘레, 바지길이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경우 길이항목인 재킷길이, 소매길이는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길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셔츠의 경우 1학년이 목둘레, 가슴둘레, 소매통, 소매길이 항목에서 크거나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지의 경우 1학년 학생은 허리둘레가 크고 바지길이가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을 고려하여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여 3년을 착용하므로 1학년의 경우 특정 부위에서 크거나 길다고 느끼며 급격한 신체 성장으로 인해 2, 3학년들은 작거나 짧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시에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여 3년간 착용하므로 맞춤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맞춤새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착의평가에 의한 맞춤새 평가, 중학생의 신체 치수 분석과 업체의 제품 치수와의 비교 분석 등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교복 수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4.9%의 학생이 교복을 수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선 이유로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선하였다. 교복 바지의 길이를 수선했다는 응답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지통을 수선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명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바지길이와 바지통의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 크거나 길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수선하여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남자 중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와 교복의 맞춤새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교복의 치수 체계 설정, 성장량을 고려한 패턴의 개발 및 최적 여유량의 설계 등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비자 정보를 반영한다면 수선율을 줄이고 교복의 맞춤새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의 구매행동, 교복의 맞춤새, 수선 경향 등을 조사하여 교복 착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신체 변화가 빠른 남자 중학생의 교복 치수 및 맞춤새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자 중학생의 체형 특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References

- Hyun, E. K., Kang, M. H., & Nam, Y. J. (2008). A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uniform wearing condi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8), 1190-1201.
- Jeong, H. Y., Kim, K. A., & Suh, M. A. (2007). The comparis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between boys and girls at pubert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5(1), 37-57.
- Lee, H. J. (2006).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fitness of sizing system and satisfaction for fall and winter school unifor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1), 48-63.
- Lee, J. M., Lee, J. R., & Koo, Y. S. (2009). Comparison of actu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1(5), 753-763.
- Lee, J. S. (1998). A study on body form variation of Junior high school boys. *디자인연구*, 6(0), 91-103.
- Lee, J. S., Yun, J. H., & Cho, Y. C. (1997).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end of bo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izing system of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iform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5(3), 159-175.
- Lee, K. M., Choi, H. S., & Kang, Y. S. (2004). A study on sizing system for the school uniforms of middle-school boy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 119-130.
- Lee, S. E. (2001). *High school students' body image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uniform-Centering around coeducational school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m, Y. M., & Shin, K. J.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end of bo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izing system of boys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iforms.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 Engineering Fall Conference, Korea*, 108-111.